

# 미래성장동력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개발’

고령친화제품 개발부터 유통까지 실질적인 지원 필요 ... 내수 및 수출 유망제품 발굴해야

글\_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이경신 연구원

##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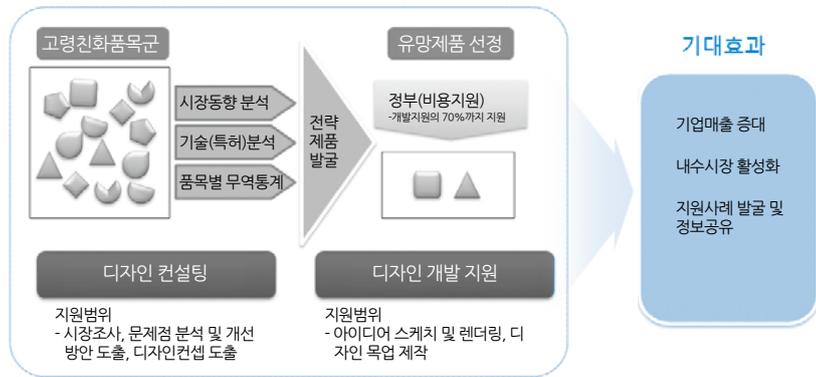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전체인구 중 12.7%(통계청, 201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인구고령화, 베이비붐세대 은퇴본격화로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13년 새 정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부흥 분야 중 창조경제의 신산업 신시장으로 개척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입비중이 높은 고령친화제품을 국내 고령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품질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기고에서는 국정과제의 단위과제인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의 지원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고령친화제품 산업체 지원 내용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은 고령친화제품의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국내 고령친화산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로는 △고령친화제품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비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 시험비 △고령친화제품 해외규격인증비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고령친화제품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비 지원’은 제품 개발에서 최종 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단계까지의 과정에서 초기 제품 컨셉을 도출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기 전 단계까지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제품의 컨셉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디자인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개발 제품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디자인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금형 설계 및 제품 도면(3D작업), 목업(mock-up)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사업비의 70%까지 최대 7,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그림1] 디자인컨설팅 및 제품 개발 지원 체계

다음으로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은 당해 연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신규 지정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시험검사 수수료 등(전기·전자시험 포함)을 1개 업체당 최대 4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기 위해 산업체들은 단순히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품목에 따라서 의료기기 신고·허가, 단체표준인증, 자율안전표시(KC)인증을 받아야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다. 이러한 수많은 단계를 거쳐 제품의 성능검사를 통과하기까지 소요되는 산업체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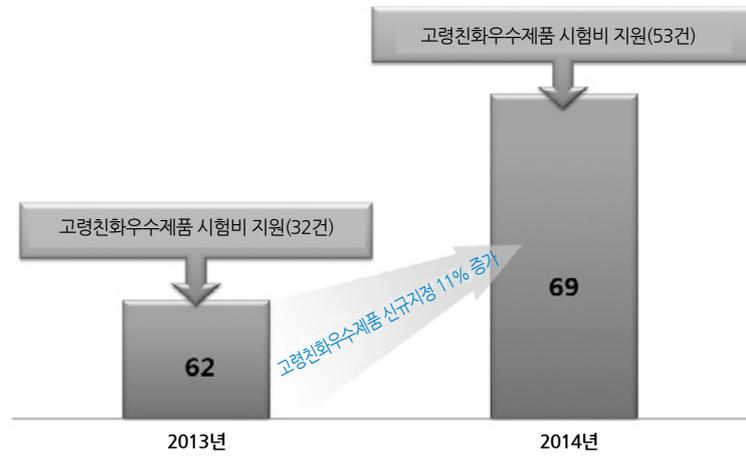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제품 해외규격인증 지원’은 고령친화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규격(해외규격인증비, 컨설팅 비용 등) 획득비용으로 총획득비용의 70%까지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최근 국가 간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획득은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요건으로 주요 수출 국가의 바이어들 대부분이 각 국가의 주요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전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제품 품질의 신뢰도를 높여 지속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TBT’: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기술 규정·표준·인증 등을 적용해 민간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교역을 막는 것(산업통상자원부, 2014)

##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 사례 및 성과

2013년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으로 시작한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 사업은 2013년 신규로 지정 받은 고령친화우수제품 62개 제품 중 32개 제품, 13개 산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2014년 고령친화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제품 개발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의 지원한도를 높이고, 고령친화제품의 품질 개선,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등의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산업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분야별 지원 성과들에 대하여 살펴보자.

첫 번째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을 통해 2014년 고령친화우수제품 신규지정 69개 제품 중 53개, 28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201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 급여기준이 이원화되면서 고령친화우수제품



[그림 2] 2014년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에 따른 지원 성과

의 인센티브 감소로 인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2013년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 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신규지정 건수가 11% 상승하는 등 차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고령친화제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은 16개 신청 업체 중 8개 업체를 선정하여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금형제작비 및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하였다. 8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완제품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5개 제품은 2014년 고령친화우수제품 신규 제품으로 지정받았다. 고령친화제품 품질 개선 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향후 복지용구 등록 및 요양시설 판매들을 통해 연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미키코리아\_목욕의자



성심의료산업(주)\_전동침대



(주)보필\_보행보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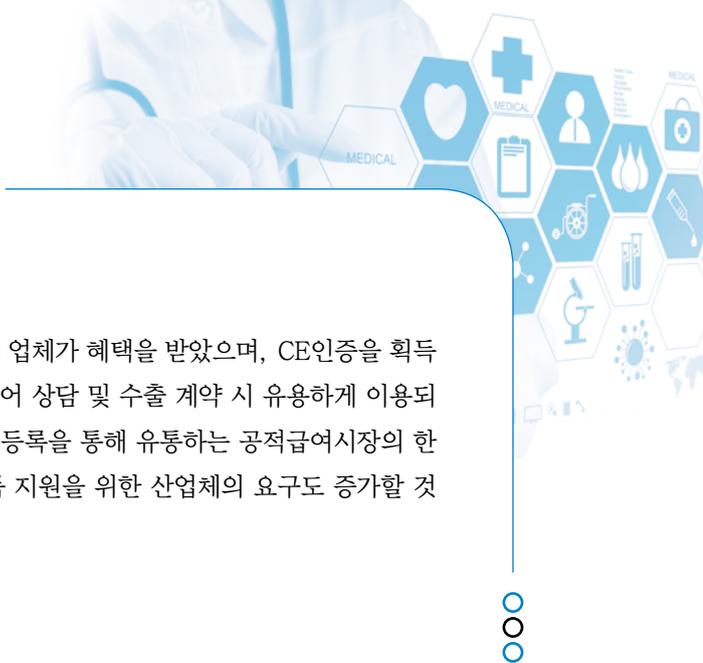
(주)엠씨텍\_안전손잡이



클리어뷰헬스케어\_욕창예방매트리스



(주)엔젤윙즈\_배변처리기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제품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을 통해 1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으며, CE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프랑스, 독일에 수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출됨으로써 바이어 상담 및 수출 계약 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앞으로 대부분의 고령친화제품 제조업체들은 복지용구 급여 등록을 통해 유통하는 공적급여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산업체의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 결론

현재 고령친화산업은 전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포괄적인 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스타기업이 전문한 실정이다.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주기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 사업은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 뿐 아니라 해외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망제품을 발굴 지원하고, 고령친화제품 개발 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그간의 정부의 지원 방향은 주로 기존 고령친화제품을 개선하는 단계의 리디자인(redesign) 개념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제품 및 서비스를 융합한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14.
2. 2014년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12.
3. 고령화·저성장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4. 정부의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을 통한 디자인 신규수요 창출반안, 지식경제부, 2012.4.
5.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원 방안 요구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3.
6. 청와대 [www.president.go.kr](http://www.president.go.kr)
7.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www.esenior.or.kr](http://www.esenior.or.kr)